

“고인물이 썩듯 마음도 안 닦으면 오염”



정관 스님 (영주암 회주)

“허공 끝이 어디인가?”
“허공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어디로 누워있나요?”
“서울시도 허공도 내 안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춤을 추면 하루 몇 번 춤을 춰니까?”
“내 마음에 따라 춤을 춰니다.”

정관 스님께 법문을 청했더니 대뜸 선문(禪問)을 던지신다. 마음을 채 가다들기도 전에 날아온 물음 이기에 떠오르는 대로 답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화두선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논리적인 것은 고정된 것이며 사구(死句)입니다. 화두는 직관이 답이 되어야 활구(活句)가 됩니다.”

스님이 따라주시는 구기자차를 한잔 마시고 나니 당황스러웠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부산 광미동 배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영주암은 정관 스님께서 혼자 힘으로 일구어 온 사찰이다. 배산 자락을 깎고 주춧돌을 놓고 기와를 이기고 그릴

시방법계 두루뭉실 산하대지 어디에도 꼭 차 있는 신령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의 마음은 다 겁생으로 익혀 온 습성지의 마음입니다. 탐진치, 거짓말, 양설(兩舌), 악구(惡口), 시기질투, 어리석음, 명예욕이 습성지의 마음입니다.”

인연 이전 본래지는 식(識)도 아니고 습(習)도 아니며 업(業)도 아니며 텅 빈 적적(寂寂)인 것이며, 이를 가리켜 청정법신이라 한다. 본래지가 차가운 연을 만나면 차갑다는 반응을 하고, 따뜻한 연을 만나면 따뜻하다는 반응을 하게 된다. 이처럼 본래지가 연(緣)을 만나 반응하게 되면 식(識)이 되고 식이 모이면 습(習)이 되고 습이 쌓이고 쌓이면 중업(重業)이 되는 것이다.

“마음은 본래지에서 출발해서 본래지로 돌아와야 합니다. 습성지의 마음을 벗어나고자하면 분발하고 대발심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 수행과 성찰은 자기 제도입니다. 샘의 물이 아무리 졸다 해도 늘 퍼 쓰는 데에서 다음의 좋은 물이 생산되는 것이 지 퍼 쓰지 않고 고인 물 그대로 두면 좋은 새 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닦지 않으면 오염되고 노쇠해지고 탐진치에만 빠져드는 병든

두라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극한 신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송화두 공덕이 결국은 간화화두(看話話頭, 의정화두(疑情話頭)로 이어지고 발전이 있어요. 의정 없는 화두보다 오히려 처음부터 송화두로 신심을 다하는 것이 자기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처음에는 송화두로 시작하여 자연히 의정화두로 발전했지. 화두선이든 송화두선이든 간절해야 하고 몰려서지 않아야 합니다.”

정관 스님은 출가사문은 출가하는 그 시간 그날부터 빼어 사무치는 간절한 신심이 자기 집이고 자기 절이라 했다. 구도자는 몰려서지 않는 지극한 신심이 중요한 것이지, 깨달음은 그 다음의 일이다.

정관 스님은 졸음을 쫓기 위해 서서 관세음보살 주력을 일심으로 했다.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주력을 하다 보니 염주 줄이 자꾸 끊어져 나중엔 철사로 바꾸었지만 그것마저 끊어질 정도였다. 범어사 원효암에서 일주일 단식기도를 하며 주력을 하던 어느 순간 ‘관세음보살 하는 이 놈이 무언가’ 하는 의심이 올라왔고 스님은 동산 스님께 달려가 여쭙었다. “그대로 하면 돼.” 은사스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공부 힘을 얻었다.

“송화두도 끊어지지 않는다면 자기의 내면성이 항상 밝고 깨어있지 않겠느냐”면서 활짝 웃으신다.

정관 스님은 세수 팔십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하루에 9시간씩 목탁 치면서 ‘관세음보살’ 송화두를 하신다. 염불로 하루를 열고 염불로 하루를 마감하는 일과를 수십 년 넘게 이어온 것이다. 젊은 스님들도 사본 정관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궁금하여 여쭙었다.

“수행은 마음 에너지로 하는 것이지 육신 에너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불퇴보리심이 결국 도(道)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믿는 마음은 한계가 없어요.”

계곡에 그저 흘러가는 냇물을 그대로 둔다면/ 억만 겁이 가도 저수지가 될 수 없듯이/우리를 마음 에너지로 육신 요구대로/ 생각 없이 쾌락 쪽으로 흘러보낸다면/남는 것은 늪의 슬픔과 허무뿐// 하지만 마음 에너지도 모으면 무형의 금짜라기가 된다/네염파(念波)도 금짜라기라네.

“화두 공부의 낙을 법열(法悅)이라고도 하잖아요. 법열은 어떤 물질을 바탕으로 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분발하여 정진한 자기제도의 결과입니다. 법열의 즐거움은 조건부도 시한부도 아닌 것이며 다음 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낙(樂)이지.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잠깐이듯이 세속의 낙은 조건부이고 시한부입니다. 좀 깊이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를 앞에 백 년 전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앞으로 백 년 후가 되면 현재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만나볼 수 없을 것이니, 우리가 애지중지 하는 육신은 뜬 구름 같고 아침이슬 같고 꿈과 같이 허망하고 그림자같이 잠깐입니다.”

정관 스님 초소에는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요즘은 어느 때보다 하소연을

화두는 직관이 답 되어야 활구

닦지 않으면 탐진치에 빠져들어

지식·인식 틀 벗어나게 하는 것이 禪

계한 가지씩 이루어 온 것이기에 눈가는데 마다 세월의 더께보다는 열정과 정성이 배어 있다. 정관 스님은 참선공부를 원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30년 전 부터 시민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선원을 거쳐 간 사람은 200여 명이 되고 지금은 사십여 명 정도가 토요일마다 화두참선을 하고 있다. 정관 스님은 <선문활요> <육조단경> 등 옛 선사들이 참선 공부의 지점으로 삼았던 글들을 강의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독거유학(獨居遊學) 누리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스님의 초소에 ‘본래지당(本來知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우리 마음은 본래지(本來知)·습성지(習性知) 두 가지입니다. 본래지의 마음은 대자연의 마음이요 천연의 마음이라면, 습성지의 마음은 세세생생 본인의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마음입니다. 본래지는 천지(天地)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마음이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펴 볼 수 있는 수련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참선이고 염불이지요.”

정관 스님은 마음공부 하는 데는 화두선(話頭禪)과 송화두(誦話頭)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스님은 염불을 송화두라고 칭한다.

“자기 인식 밖의 의문을 밖으로 던져 놓는 것을 화두라 하잖아요.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대를 강에 던져 놓으면 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려들듯이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은 화두의문을 밖으로 던져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지식과 인식의 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선(禪)의 참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어놓은 알음알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범부들의 삶이지요. 화두공부는 화두의문에 착(着)이 되어야 하고, 화두의심이 깨달아 진다면 대자유를 얻는 것이지요. 간화선이 잘 안되는 사람은 우선 송화두로서 발심해야 합니다. 송화



(재)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제 8대 총무원장 화엄 종사이·취임법요식

삼보에 귀의하옵고
항상 본 종단을 애중하시는 전국 종도 여러분과 일불문도 여러분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하시는 제반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산하 본 종단에서는 나라의 안정과 인류평화 및 지난 중앙총회에서 선출된 제 8대 총무원장 화엄종사이 이·취임법요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이 동참하시어 일불존자예하의 범통수호와 유지보존 및 종단중흥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1. 일 시 : 2009년 3월 5일(음. 2. 9) 목요일 정오 12시
- 2. 장 소 : 인천 라마다(송도)호텔
- 3. 준비사항 : 당일 11시 30분까지 입장완료
- 4. 연 락 처 : 총무원 / 봉행위원회 (02)998-8161,2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제 8대 총무원장 이·취임 봉행위원회

귀의 삼보하옵고 기축년을 맞이하여 자타가 두루두루 성불하옵소서!

대저 조계정토불교총원은 새로운 수행총원으로 미타불교와 미륵정토를 동시 수행하는 조계산맥인 돈오돈수(조사선/염불선/여래선/목조선) 육화정신으로 정토세계를 건설하는 조계총원입니다.
고로 저희와 같이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수행자(스님/법사)와 본원에 사찰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내 용

- ◆ 사찰등록
구비서류 : 이력서/재산목록(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통/도장/사진2매(반 명함판)
- ◆ 승려증
구비서류 : 이력서/주민등록등본1통/도장/사진2매(반 명함판)
- ◆ 법사증
구비서류 : 이력서/주민등록등본1통/도장/사진2매(반 명함판)
- ◆ 문의 및 접수처 : 본 총원 총무과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38-5(2층)
전화 02)720-3661 / 팩스 02)720-3578 / 야간(구암사) 02)386-9679
상담실 : 법운스님 010-7556-8333

나무정토세계(미타, 미륵)

불기 2553년

사단법인 대한조계정토불교총원
직원일동 이사 정세영